

“올림픽 양궁 금메달 산실에서 함께 꿈을 키워요”

광주여대 ‘2025 제4회 광주·일본 양궁 교류대회’ 개최

일본 국가대표 등 80명·광주 선수단 50여명 참가 합동 훈련·교류전
양궁 기술·문화 소통 ‘우호 다지고, 추억 만들고’ 국제교류 모범사례

“3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여대의 빛나는 기운을 받고 싶습니다.”

광주시양궁협회가 주관하는 ‘2025 제4회 광주·일본 양궁 교류대회’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18일까지 개최된다.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교류전에는 일본 양궁 국가대표, 주니어 양궁대표를 비롯한 80여 명의 일본 선수단과 광주은행, 남구청, 광주여대 등 광주선수단 50여명이 참가해 양궁 기술 교류와 우호증진의 장으로 펼친다.

대회 기간 양국 선수들은 합동 훈련과 교류전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문화 교류로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추억을 만든다.

특히 다나카 노부카네 일본 양궁협회 이사장이 직접 경기장을 방문, 이선재 광주여대 총장과 한·일 양궁의 공동 발전과 상호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보배, 최미선, 안산을 세계적인 양궁 스타로
키워낸 광주여대는 세계가 주목하는 ‘여자 양궁 사관학교’로 이름이 높다.

광주여대 양궁 유학생 1, 2호인 야와타리 아카네와 이와이 타카라는 광주시양궁협회와 일본 양궁협회 우호 교류 일환으로 진행된 전지훈련에 참가하며 광주와 인연을 맺었다.

양궁 선수로서 큰 꿈을 가진 야카네는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공부하며 훈련했던 광주여대에 대한 무한한 동경으로 단짝 친구 타카라와 광주여대 양궁 유학을 시작했다.

야카네는 “평소 꿈꾸던 올림픽 스타들과 훈련을 함께 한다는 뿐만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라는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준 선배 언니들의 응원, 김성은 감독의 맞춤형 지도가 든든한 힘이 돼 타카라와 보람차고 행복한 유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며 “이번 교류전에서 양국 선수들의 소통의 창구로 선수들이 불편함 없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에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미선(광주은행텐텐양궁단)은 “동계 훈련 기간 일본 선수들과 함께 한 교류전이 신선했고



제4회 광주·일본 양궁 교류대회에 참가한 광주·일본 선수단이 17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열린 교류전을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여대 제공>

자극이 되고 있다. 함께 경기를 하며 긴장감도 끌어올리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하며 내년 3월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3차선발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류전이 인연이 돼 태극마크를 달고 내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오

늘 함께 한 일본의 누군가와 함께 사대에 선다면 더욱 의미가 있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일본 양궁 교류대회는 양국 선수들의 기량 향상은 물론, 국제 스포츠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과 지역 스포츠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희중기자

안세영, 왕중왕전 첫 경기 승리…‘최다승’ 시동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에 ‘진땀승’

단일 시즌 역대 최다 우승 기록에 도전하는 배드민턴 ‘최강’ 안세영이 올해 마지막 무대인 월드투어 파이널스 첫판을 불안하게 출발했다.

안세영은 17일 중국 항저우의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파이널스 2025 여자 단식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인도네시아의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세계랭킹 7위)를 2-1(21-16 8-21 21-8)로 꺾었다.

안세영은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였다.

첫 게임에서는 시초게임 끝에 16-16 동점 상황에서 5점을 연속으로 따내며 21-16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2게임에서는 초반부터 흐름을 내주더니 내내 끌려다니며 고전했다. 안세영은 2게임 3-1로 앞서던 상황에서 5연속 실점해 3-6으로 역전을 당했고, 이후에도 5-6에서 10점을 연속으로 내주며 8-21로 완패했다.

하지만 3게임은 달랐다. 집중력을 되찾은 안세영은 끈질긴 수비로 상대를 묶고 한 박자 빠른 공격으로 초반부터 6점씩 쓸어 담으며 6-0, 2-1로 점수 차를 벌렸고,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켜 승리를 완성했다.

올 시즌 벌써 10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할 경우 단



지난달 23일 열린 호주오픈에서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안세영. /AFP=연합뉴스

일 시즌 최다 우승 타이기록을 세운다.

2019년 11승을 기록한 일본 남자 단식 선수 모타 간토와 어깨를 나란히하게 된다.

아울러 준결승에만 진출해도 60경기 이상 출전한 선수 중 단일 시즌 최고 승률을 다시 쓴다.

안세영은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포함해 이번 시즌 15개 대회에서 68경기를 치렀고, 그중 64경기를 이겨승률 94.1%를 기록하고 있다.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는 한 해 동안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배드민턴계의 ‘왕중왕전’ 격으로, 각 종목 연간 월드투어 포인트 합산 상위 8명만 출전할 수 있다.

선수들은 4명씩 A조와 B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르고, 각 조 상위 2명이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린다.

안세영은 18일 열리는 2차전에서 미야자키를 상대한다.

/연합뉴스

가족형 동계 스포츠 체험…장애인 선감동 선사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가족형 동계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9일까지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키장에서 ‘2025 광주 장애인체육가족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스키캠프는 장애인체육 가족이 동계스포츠를 체험하며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가족 간 유대감을 돋우기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캠프에는 관내 5개 구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참가자 가운데 스키캠프 신규 참가자를 우선 선발해 총 13가구 20명의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며, 운영진과 전문 강사를 포함해 총 40명이 함께한다.

스키캠프는 참가자의 장애 특성과 신체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스키 교육을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단계적으로 지도하며, 이를 통해 참가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도 함께 안전교육과 스キー 체험에 참여함으로써 동계 스포츠

광주시장애인체육회, 2025 장애인 체육가족 스키캠프 ‘훈훈’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족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이번 스키캠프는 장애인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하는 가족형 체육 프로그램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 가족이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가족 동반 체육 캠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광주FC, 프리드온슨과 내년에도 동행

프로축구 광주FC가 ‘아이슬란드 폭격기’ 프리드온슨(32)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광주는 17일 “아이슬란드 출신의 장신 스트라이커 프리드온슨과 계약을 연장하고 내년 시즌에도 함께 동행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이슬란드 출신으로는 최초로 K리그에 입성한 프리드온슨은 아이슬란드 구단 HK 코파 보구르를 통해 프로 커리어를 시작해 스코틀랜드 명문 구단 셀틱에 입단할 만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 등 유럽 각국 리그를 경험하며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196cm·85kg의 강력한 피지컬을 자랑하는 프리드온슨은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공중볼 싸움에 능하고 헤더에도 일가견이 있다.

원발잡이지만 오른발 사용 능력도 준수해 박스 안에서 침착한 마무리, 연계 등에 장점이 있는 타겟형 공격수다.

프리드온슨은 이번 시즌 리그 9경기에서 2골을 기록했으며, 특히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귀중한 동점골을 기록하며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가는 활약을 펼쳤다.

/박희중기자



내년 시즌도 광주와 함께하는 프리드온슨

<광주FC 제공>

반년간의 적응기를 거치며 K리그 환경과 팀 전술에 익숙해진 만큼, 내년 시즌 광주의 공격 구성에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리드온슨은 “광주에서 다시 한번 신뢰를 받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득점을 목표로 해 팀에 보탬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희중기자

뎀벨레, 발롱도르 이어 FIFA ‘올해의 선수상’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에서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는 공격수 우스만 덴벨레(프랑스)가 국제축구연맹(FIFA) 올해의 남자 선수상의 예상을 안았다.

덴벨레는 17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더 베스트 FIFA 풋볼 어워즈에서 칼리안 음바페(레알 마드리드·프랑스), 라민 암랄(FC바르셀로나·스페인)을 제치고 올해의 남자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9월 발롱도르를 받은 덴벨레는 FIFA가 주는 최고 권위 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최고 축구선수로 입지를 굳혔다.

이번 시상식에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활약을 기준으로 후보들을 평가해 수상자를 정했다.

이 기간 덴벨레는 PSG가 창단 첫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을 일군 것을 포함해 4개의 트로피(리그1, 프랑스컵, 트로페 더 샹피옹)를 들어 올리는 데에 핵심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 공식전 53경기에 출전해 35골 16도움을 올렸다. 특히 UCL에서만 8골을 책임졌다.



발롱도르에 이어 FIFA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한 우스만 덴벨레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즌 초반 다소 부진했던 덴벨레는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전술 변화에 따라 중앙 공격수로 기용된 뒤 기량을 만개하며 무시무시한 공격력을 뽐냈다.

/연합뉴스